

불국사 주지등 밤샘조사

경찰 조계사 사태 관련 도오 스님도 연행

94.4.2

폭력배 숙박비 결제 집중추궁

조계사 폭력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서울호텔에 투숙한 뒤 숙박비를 결제한 경주 분황사 주지 박도오스님을 경주에서 연행해 숙박비 결제 경위와 폭력배들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총무원 무송 스님(속명 김영철)이 호텔에 제시한 비씨카드가 불국사 법인카드인 것을 확인하고 불국사 주지 김종원(56) 스님을 연행조사해 도오 스님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도오 스님이 총무원측과 폭력배들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폭력배 동원 경위 등에 관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관련기사 4·14면

경찰에 따르면 호텔 영업부장 김아무개씨가 지난 29일 오후 1시에 방을 예약한 김금남씨에게 숙박비 결제를 요구하자 조계종 총무원 규정부 무송 스님이 도오 스님에게서 넘겨받은 서울신락은행 비씨카드를 제시하며 "30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할테니 일단 금액을 적지 않은 매출전표만 끊고 김금남씨를 돌려보내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호텔측으로부터 이날 오

전 6시5분께 50대 남자가 호텔 경비실에 1만원권으로 5백만원이 든 가방을 던져놓고 달아난 뒤 이날 오전 9시께 호텔 프론트로 "가방에 든 돈이 숙박비니 카드 매출전표를 돌려달라"는 전화가 걸려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매출전표를 찾으러 온 김종원 스님을 호텔 옆 커피숍에서 연행했다.

경찰 조사결과 도오 스님은 폭력사태가 일어나기 전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서울호텔에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지난달 27일 오전 9시께 신원을 알 수 없는 20대 남자가 호텔에 현금 75만원을 내고

방을 10여개 예약한 뒤 이날 밤 폭력배들이 투숙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남자의 신원을 확인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28일 오후 11시께 김금남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호텔방 32개를 예약한 직후 폭력배 수십명이 투숙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잠적한 총무원 규정부 고종록 계장과 무송 스님 연고지에 형사대를 급파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또 범종추족 승려들이 폭력 현장에서 확인해 제시한 서울2 추4983 흰색 뉴그랜저 승용차의 번호를 컴퓨터조회해 남아무개

(29)씨가 타고 다닌 사실을 확인하고 나씨의 소재를 찾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장에서 발견된 무선호출기가 나씨가 개설한 후배인 김아무개(30·경기 광명시)씨가 차고 다닌 사실을 확인하고 과청년들의 일부가 광명 일대의 조직폭력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광명경찰서 박아무개 강력반장이 김씨를 호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를 상대로 김씨의 신원과 김씨와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수사지휘를 맡고 있는 서울지검 공간2부(정진규 부장·황교안 검사)는 이날 이번 사건의 핵심고리에 해당하는 무송 스님도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조직폭력배들이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상세한 수사지휘를 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에 한계가 드러날 경우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에 수사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의암댐 기름 흘러 발전중단

【춘천=김종화 기자】1일 오전 7시10분께 강원도 춘천군 신동면 의암수력발전소에서 기름 4백여ℓ가 북한강으로 흘러들어 이날 오전 10시5분께 의암댐 발전이 중단됐다.

춘천군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의암댐 수차발전기에서 윤활유 2드럼(4백여ℓ) 가량이 새나와 일어났다.

의암댐 관리사무소는 윤활유가 유출돼 수도권 상수원인 북한강물

이 오염되고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3시간 뒤 시꺼먼 기름이 강물에 떠내려 오는 것을 발견한 강촌검문소와 강촌역 근무자들의 신고를 받고 뒤늦게 발전을 중단했다.

사고가 나자 관계공무원 40명은 의암댐 하류 15km 지점의 춘성대교 밑에 5백m 가량 기름방지막을 친 뒤 유화제를 뿌려 오염방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계사 총무원 규정부 3인방

서원장 출범뒤 부장직말은 최측근 보일 분규때마다 폭력배 동원 직접지휘 고종록 승가대생 폭행때도 개입 행동대원 무송

조계사 폭력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진 총무원 규정부 관계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공식적으로는 20여명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규정부의 총책임자는 보일 스님(49·속명 정진길)이다.

그 밑에 지정 스님이 과장으로 있고 이번 사태 때 현장에서 지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고종록씨와 무송 스님이 각각 계장과 평직원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서의현 원장체제가 들어 서면서 총무원에 들어온 사람들로 서 원장 재임기간에 일어난 각종 분규에 직간접으로 개입해 온 서 원장의 손발과 같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규정부 부장 보일 스님은 서 원장과 30년 넘게 인연을 맺은 측근 중의 측근으로 63년 대구 동화사에서 서 원장한테 계를 받고 머리를 깎은 뒤 서 원장의 상좌가 됐다.

지난 86년 서 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규정부장직을 맡은 보

일은 89년에는 경기 강화의 보문사 주지를 겸임하게 됐다. 이 사찰은 오래 전부터 불공을 드리면 큰 효험이 있다고 소문이 나 신도들에게서 받는 시주가 연간 10억원대가 넘는 노른자위 사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일은 92년 9월에는 조계사 안의 경비원 김아무개씨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규정부장직을 그대로 유지해왔다.

보일은 각종 폭력사태 때 서 원장을 도운 폭력계의 실력자로 사파의 우두머리인 강아무개씨와의 형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주로 전남 나주·무안·

영암 출신의 폭력배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서울 영동의 0호텔을 근거로 활동하고 있다.

계장인 고종록씨는 서 원장이 취임하면서 수행경호원격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크고 작은 분규때마다 폭력배들을 동원해 직접 지휘한 행동대장으로 알려져 있다. 고씨는 이번 사태 때도 누비조끼를 입고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불교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씨는 평소 "동원한 후배들에게 '돈 벌려고 하는 짓인데 몸은 다치지 말라'고 당부하곤 한다"고 말해 자신이 직접 폭력배들을 동원해 온 사실을 내비치기도 했다는 것

이다.

고씨와 함께 현장지휘 장면이 비디오 등에 잡힌 무송 스님은 규정부장 보일의 상좌로 고씨처럼 휘하에 '별동대'를 거느리지는 않는 행동대원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송은 88년 강남 봉은사 사태 때 보일과 인연을 맺어 그 후 보일로부터 계를 받고 머리를 깎았지만 92년 승가대생을 폭행한 것이 문제가 돼 규정부 일을 그만두었다가 이번 사태 때 다시 나타났다.

과장으로 있는 지정 스님은 범종추족이 이번 사태에 동원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 일대의 폭력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개입한 폭력배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전의 분규현장에 얼굴을 보였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 규정부와 폭력배들과의 유착관계가 오랜 기간 계속돼 왔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백기철 기자**